

[25 (3월)교육청 9번]

1. 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1)

갑: 신은 모든 사람이 모든 행위에서 각자 자신의 소명(召命)에 관심을 둘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 없이 인생을 방탕하게 살지 않도록 지정해 주신 초소와 같다.

을: 사람의 성(性)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여 기준과 한계가 없으면 사람들은 서로 다투게 된다. 이에 선왕(先王)은 예의를 제정하여 경계를 정하고 각자 바라는 것을 충족하게 하였다.

- ① 갑: 직업은 원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다.
- ② 갑: 각자의 직업 노동은 신의 부름에 따른 자기 몫의 일이다.
- ③ 을: 타고난 본성을 함양할 때 구성원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다.
- ④ 을: 백성이 직분에 차이를 두지 않아야만 천하가 태평해진다.
- ⑤ 갑과 을: 직업 생활의 궁극적 목적은 경제적 안정의 실현이다.

< 보 기 >

- ㄱ. 갑: 통치자는 백성의 모범이므로 모든 일에 탁월해야 한다.
- ㄴ. 을: 목민관은 자신의 공무(公務)상 잘못에 대해 관대해야 한다.
- ㄷ. 갑과 을: 공직자는 백성의 생계를 유지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 ㄹ. 갑과 을: 공직자가 사욕(私欲)을 탐하면 민심을 잃을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6년(6월)평가원 2번]

3. 2. ,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

갑: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으니, 이 마음이 곧 인(仁)의 단(端)이다. 따라서 화살 만드는 사람도 어질다. 하지만 화살 만드는 사람은 그 화살로 사람을 해치는 데 관심을 갖게 되니, 직업은 신중히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을: 선왕(先王)은 혼란을 싫어해 예의(禮義)를 만들어 귀함과 천함에 차등을 두었다. 예의란 다스림의 시작이다. 농부는 농부답고, 선비는 선비답고, 기술자는 기술자답고, 상인은 상인다운 것도 하나의 원리에 근거한 것이다.

< 보 기 >

- ㄱ. 갑: 향산(恒産) 없이 향심(恒心)을 유지할 수 있는 자는 없다.
- ㄴ. 을: 예의에 따라 직분에 충실하면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 ㄷ. 을: 도(道)에 정통한 군주가 모든 직업에 능숙할 필요는 없다.
- ㄹ. 갑과 을: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분업이 필요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5년(7월)교육청 18번]

4. 1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4)

갑:어떤 사람은 마음을 쓰고, 어떤 사람은 힘을 쓴다. 마음을 쓰는 사람[勞心者]은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힘을 쓰는 사람[勞力者]은 다른 사람에게서 다스림을 받게 된다.

을:선왕은 예(禮)를 제정하여 지혜로움과 어리석음, 능하고 무능한 것을 차별했다. 이후 사람마다 각기 그 일을 맡기고 마땅한 곳을 차지하게 한 뒤, 녹(祿)의 많고 적음을 정했다.

- ① 갑: 분업을 통한 생산물의 교환이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 ② 갑: 백성의 향산(恒産) 보장을 정치의 궁극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 ③ 을: 예를 통해 본성을 회복하여 사회적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 ④ 을: 타고난 자질의 차이만으로 군자와 소인 간의 우열이 결정된다.
- ⑤ 갑과 을: 각자의 직분을 능력이 아닌 신분에 따라 부여해야 한다.

[25 (10월)교육청 7번]

5.7.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5)

갑: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부를 생산할수록 더 가난해지고, 상품을 많이 만들수록 자신은 더 값싼 상품이 된다. 소외된 노동은 인간으로부터 그의 본질을 소외시킨다.

을: 국가 안의 성향이 다른 세 계층이 저마다 제 일을 한다면 올바른 국가가 되는 것처럼, 개인의 영혼 안에 있는 부분들이 각자 제 일을 한다면 올바른 사람이 된다.

- ① 갑: 생산 수단의 공유는 노동의 본질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 ② 갑: 진정한 노동은 노동자 자신을 상품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 ③ 을: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을: 정의로운 국가에서 서로 다른 계층 간의 간섭은 허용된다.
- ⑤ 갑과 을: 계층 간 역할 교환 없이는 이상 사회가 실현될 수 없다

[26년 수능 8번]

6.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6)

갑: 신은 사람마다 주어진 적절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기 다른 삶의 양태를 소명이라 이름하였다. 그래서 다스리는 사람은 자기 직분을 더 의욕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가정의 가장도 자기 의무를 다할 것이다.

을: 군주가 예의를 숭상하고 법도를 이루면 나라의 표준이 있게 된다. 그런 후 사람들의 직분을 분명히 나누고, 하는 일에 질서를 마련하며, 재능과 기술을 따져 능력 있는 이에게 관직을 주면 잘 다스려 지지 않을 수가 없다.

- ① 갑: 직업적 성공은 선행에 대한 공로를 신에게 인정받은 은총이다.
- ② 갑: 소명으로 주어진 직업 중 고귀하지 않은 직업은 있을 수 없다.
- ③ 을: 군자와 소인은 그 본성이 다르기에 직업에 차별이 있어야 한다.
- ④ 을: 직업은 재능에 따라 정해지므로 공적을 따져 보상해서는 안 된다.
- ⑤ 갑과 을: 각자의 직업은 천직(天職)이기에 개인의 의지로 바꿀 수 없다.

[26년(3월)교육청 7번]

7.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7)

갑: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노동자를 하나의 상품으로 생산해 낸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자가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할수록 노동자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적어진다.

을: 세력과 지위가 같은 이들이 바라는 것과 싫어하는 것도 같으면 물건이 충분하지 않기에 다투게 된다. 이에 선왕은 예(禮)로써 경계를 세우고 욕망을 조절해 주었다.

- ① 갑: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강제된 노동으로 인해 소외된다.
- ② 갑: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동 분업이 금지된다.
- ③ 을: 인간은 타고난 본성을 함양해야 직분에 충실할 수 있다.
- ④ 을: 직업은 백성의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 ⑤ 갑과 을: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인위적 기준이 존재할 수 없다.

1)

정답 2

9. [출제 의도] 직업 윤리에 대한 칼뱅과 순자의 입장을 비교한다. 갑은 칼뱅, 을은 순자이다. 칼뱅은 직업 노동은 신의 부르심, 즉 소명으로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행해진다고 보았다.

2)

**7. [] 직업 윤리에 대한 맹자와 정약용의 입장 비교하기
정답 5**

갑은 맹자, 을은 정약용이다. 맹자는 사회적 분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통치자와 백성이 각자 자신의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약용은 목민관이 항상 백성을 편안히 할 방법을 지극한 정성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맹자와 정약용은 모두 공직자가 백성의 생계를 유지하는 일에 힘써야 하며, 사욕(私欲)을 탐하면 민심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3)

1. 맹자와 순자의 직업관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맹자, 을은 순자이다. 나. 순자는 각자가 예의에 따라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면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구성원들이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순자는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게 하는 예(禮)에 따를 것을 강조하며, 도(道)에 정통한 군주가 모든 직업에 능숙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르.맹자와 순자는 모두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분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ㄱ. 맹자는 백성은 향산(恒産) 없이 항심(恒心)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선비는향산 없이도 항심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4)

18. [출제의도] 맹자와 순자의 직업관 비교하기 정답 ①

갑은 맹자, 을은 순자이다. 맹자는 분업을 통한 직업 간 생산물의 교환이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순자는 예(禮)를 통해 사회적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

7. [출제의도] 직업 윤리에 대한 마르크스와 플라톤의 입장을 비교한다.[정답] ①

갑은 마르크스, 을은 플라톤이다. 마르크스는 공산 사회에서 노동의 본질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6)

8. 직업관에 대한 칼뱅과 순자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칼뱅, 을은 순자이다. 칼뱅은 직업은 신의 부르심,

즉 소명(召命)이며, 세상 사람들이 천하다고 여기는 직업이라고 해도 소명으로 주어진 직업은 모두신이 보기에 고귀하다고 보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칼뱅은 직업적 성공은 신의 은총이라고 보았지만, 그러한 은총이 선행에 대한 공로를 신이 인정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③ 순자는 군자의 본성과 소인의 본성은 모두 악하다고 보았다.

④ 순자는 재능과 기술을 따져 능력 있는 사람에게 벼슬을 주어야 하며 공적을 따져보상해야 한다고 보았다.

⑤ 순자는 직업은 하늘이 아니라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게하는 예(禮)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보았다.

7)

7. [출제의도] 직업 윤리에 대한 마르크스와 순자의 입장을 비교한다. [정답 ①]

갑은 마르크스, 을은 순자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분업화된 노동이 인간 소외를 발생시킨다고 보았다.